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현 명 희

2021년 8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현 명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현명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보 명 
위 원 박 정 환 
위 원 김 성 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8월

<국문초록>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현 명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재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하기 위해서 강소희(2016)

의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25문항, 5 Likert),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백호주(2013)의 진로준비행동척도(15문항, 4 Likert),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기학, 이학주(2000)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25문항, 5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18에 의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모든 변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진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진다.

둘째,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매개효과에서는 인내심과 낙관성, 위험감수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기심과 유연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개입에 있어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7
3. 연구모형	8
4. 용어의 정의	9
II. 이론적 배경	11
1. 계획된 우연기술	11
가. 계획된 우연기술의 개념	11
나. 계획된 우연기술의 선행연구	13
2. 진로준비행동	15
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15
나.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연구	17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9
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	19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	21
4. 각 변인과의 관계	23
가.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23
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24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25
III. 연구방법	27
1. 연구대상 및 절차	27
2. 측정도구	29
가.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	29
나. 진로준비행동 척도	30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31
3. 자료처리 및 분석	32
IV. 연구결과 및 해석	33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33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34
3.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6
4.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8
가.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8
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0
다.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2
라.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4
마.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6
V. 논의	47
1. 결과 및 논의	47
VI. 참고문헌	53
Abstract	66
부록	69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7
표Ⅲ-2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Ⅲ-3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0
표Ⅲ-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1
표Ⅳ-1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	33
표Ⅳ-2 변인간의 상관계수	34
표Ⅳ-3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6
표Ⅳ-4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8
표Ⅳ-5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유연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0
표Ⅳ-6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인내심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2
표Ⅳ-7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낙관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4
표Ⅳ-8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위험감수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6

그림 목 차

그림 I -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8
그림 IV-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7
그림 IV-2 대학생의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9
그림 IV-3 대학생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1
그림 IV-4 대학생의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3
그림 IV-5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5
그림 IV-6 대학생의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선택중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진로선택과 준비일 것이다. 진로의 궁극적 목적도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의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사회시스템이 흔들리며 진로와 취업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통계청이 2021년 3월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2636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중이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58.6%로 2013년 2월(57.5%) 이후 2월 기준 최저치다. 코로나19 사태 후 고용위기를 연령별 취업상태로 보면 주로 젊은 층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신규 채용과 각종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면서 20대의 취업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사회, 환경적 변화로 인해 취업준비를 하던 대학생들은 더 큰 부담감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전 생애에 걸쳐 발달된다(김계현, 2006). 그렇기에 진로의 결정은 사회·경제적 지위, 능력 발휘의 기회, 인간관계, 가치관과 태도, 건강, 가족관계, 거주지 등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의 인

생을 결정짓게 한다(Tolbert, 1980). 이처럼 진로의 선택과 결정은 평생을 걸쳐 계속되지만, 대학생 시기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학생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며 직업 세계로 적응하는 전환의 과제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장계영, 김봉환, 2011).

특히 첫 직업은 미래의 성공에 상당한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Saks & Ashforth, 2002), 미래의 지위와 수입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변인으로 확인되었다(Steffy, Shaw, & Noe, 1989). 즉 대학생의 진로선택은 단순한 직업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성공적인 발달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최주영, 2020).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2018년 2월 583명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교 입학 후 졸업까지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여자대학생은 평균 4.8년, 남자대학생은 6.2년으로 평균 5.4년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문제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이 늘었고 졸업예정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졸업 시기가 앞으로 더 늦춰질 것으로 답했다(잡코리아, 2018). 특히 2019년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대학생의 5명 중 1명은 다음 학기 휴학을 계획하며, 그 이유로 진로 모색(34.4%), 직무 경험(31.9%), 취업 준비(28%)등으로 제시했다(잡코리아, 2019). 이처럼 졸업 후 바로 사회로 진입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이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으며, 졸업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이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닌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결혼 및 출산의 지연 등 연계되는 문제까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교서열 및 합격위주로 전공학과를 선택하거나 부모, 교사의 뜻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전망과 이에 따른 진로 불안 등 전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휴학이나 군 입대 등으로 진로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생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준비행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실제로 대학상담센터에서 상담했던 대학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가 대다수였고(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연구를 보더라도,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8,247명 중 60%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졸업 후 진로'라고 응답했다(장현진, 정윤경, 김민경, 류지영, 2017).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진로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대학생들이 활용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 대부분이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개인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재성, 정철영, 2006; 이준기, 2005).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문제는, 선행연구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통한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왔다. 고경필, 고정리(2018)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진로결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진로 경로 및 진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위하여 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상담 및 체계적인 진로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지적 능력, 흥미, 적성 및 성격, 진로 결정 수준과 같은 인지나 태도 요인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 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도 포함한다(김봉환, 1997). 즉,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란 사회에 진출하려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기에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 시기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미래의 변화

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유순화, 2016)로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시대에 이르면서 직업세계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였다. 고용과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여성경제활동인구의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구성이 다양해졌으며, 세계화와 기술의 발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직업세계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자기관리를 통해 불안정하고 다원화된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이러한 사회변화는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건의 발생 등으로,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진로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안윤정, 오현주, 2012).

또한 복잡하고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하여 직업세계가 다양해지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따른 진로변화를 개인이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까닭에 과거의 진로지도처럼 계획성과 합리성만 강조하다보면 개인이 변화에 동참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퇴보시킬 수 있다.

최근 진로이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계획된 우연기술이론은 진로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기회 또는 우연의 활용 중요성을 부각시켰다(황현덕, 2012). ‘계획된 우연’이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진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요인으로 탐색과 기술이 필요하며, 탐색은 우연을 만들며 기술은 우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내적특성이다(권수현, 2017).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을 바꾸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학습기회를 탐색하고, 난관 속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태도이자 행동양식이다(강소희, 2016). 예를 들면, 예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과정 중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실습, 동아리활동, 교육봉사, 아르바이트 경험, 현장 탐방, 현장전문가 특강, 성공적인 취업 및 직업군에서 성취를 이룬 선후배나 친구와의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연하게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역량을 평가하고 진로에 대한 보다 확고한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비유아교사가 이러한 우연한 경험을 기회로 승화시켜 교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로인식 및 바람직한 교육적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된 우연기술의 형성은 중요하다 하겠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한 개인이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스스로 발달시켜야 할 특성으로 진로와 관련된 변인 중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권연정, 2019).

계획된 우연 기술이란 예측 불가능하고 계획되지 않은 우연을 개인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진로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개념으로 (Mitchell et al., 1999), 직업선택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때, 자신의 진로를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기술로 확인되었으며, 직업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맞게 기존 환경을 변화시키며,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직업선택 과정에서 뿐 아니라 직업적응을 해 나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현주, 2012).

즉 계획된 우연 기술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진로변인으로 개인의 진로선택에서부터 직업적응에 이르기까지 진로발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계획된 우연 기술은 대학생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현시대의 직업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학습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송영희(201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변인 중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조남근과 정미예(2013)의 연구에서도 우연대처기술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취업 선택을 돕고, 취업 후 이직 가능성을 낮추며 자신을 탐색하고 직업을 탐색하는 준비행동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진로를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또 다른 하나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를 위해서 필요

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로계획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고(김봉환 외, 2013), 직업적 성공에 대한 믿음에도 영향을 미치며(이기학, 이학주, 2000),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과 선택을 통합하고 조정해 나가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준다(조명실, 2007). 특히 학업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기를 맞은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더욱 중요시 되는데(서보람, 2016), 이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권수현(201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차영은, 김시내, 강재연(2015)도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을 상,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고,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동인이 되며,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진로고민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상담장면에서 벗어나 보다 더 현실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1. 대학생의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대학생의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대학생의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를 통해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이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구문제 1’를 통해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이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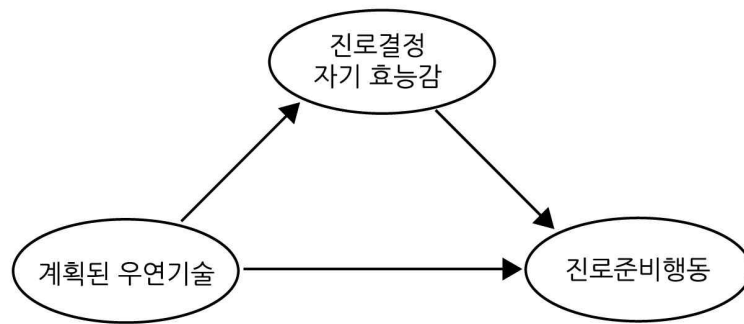


그림 I -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계획된 우연기술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은 예상치 못한 우연적 사건이 개인의 노력에 따라 기회가 되어 직업을 선택한다는 이론으로 개인의 인내심, 호기심, 위험감수, 낙관성, 유연성의 다섯 가지 요인이 진로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내심은 개인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꾸준한 노력으로 길러지며 호기심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한 대안을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감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의 위험을 감수하여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를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뜻한다. 유연성은 우연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였을 때 학습된다(Michell, Levin, Krumboltz, 1999).

계획된 우연기술(Planned Happenstance)을 측정하기 위하여 Krumboltz(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근거한 Kim 등(2014)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김보람(2012)의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의 버전을 개정한 것(강소희, 2016)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나.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rtion Behavior)은 실천적이며 구체적 차원으로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의미한다(김봉환, 1997).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의 측면을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는 활동,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백효주(2013)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부분 수정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 진로발달이론을 적용하여 Hackett와 Betz(1981)가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 즉 진로선택과정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개인적 확신성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국내 연구에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계획, 실행, 평가를 스스로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이라 정의하였다(이종찬, 2013).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을 이기학,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것으로 사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택, 미래계획, 문제 해결의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를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계획된 우연기술

가. 계획된 우연기술의 개념

Krumboltz(1999)는 ‘우연학습이론(Happenstance Learning Theory :HLT)’을 기초로 하여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을 발전시켰다. 예기치 않은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우연적 사건을 개인의 우연기술을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계획된 우연이라고 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개인은 우연한 사건을 인식하고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연한 사건이 많을수록 진로에 긍정적 결과를 미치는 기회도 많아진다고 정의하였다. Mitchell & Krumboltz(1999)는 계획된 우연은 성격적 특성으로 주어진 환경에 대처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환경적 조건, 유전적 요인, 학습경험 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박근영, 2015).

계획된 우연은 5가지 하위요인으로 호기심(curiosity), 유연성(flexibility), 인내성(persistence), 낙관성(optimism), 위험 감수(risk taking)를 두고 있다. 호기심은 정보 탐색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말하며, 유연성은 변화에 대응하여 태도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내성은 직업탐색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낙관성은 주변의 우연한 사건을 긍정적 관점에서 기회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한다. 위험감수는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고자라도 도전하는 성향이다(Mitchell, Levin,& Krumboltz, 1999).

개인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다섯 가지 우연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런

기술이 발달된 사람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에 있어서 우연적 사건에서 오는 기회를 잘 인지하고 활용함으로 인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Bandura(1982)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경로를 형성하는데 우연적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할수록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우연의 역할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직업선택은 우연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다(Betsworth & Hanson, 1996; Cabral & Salmone, 1990; Hart, Rayner, & Christense, 1971; Roe & Baruch, 1967; Scott & Hatalla, 1990; Williams et al., 1998).

계획된 우연기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을 바꾸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학습기회를 탐색하고, 난관속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태도이자 행동양식이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낙관적 시선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자라도 끝까지 행동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는 진로발달을 위해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인 우연을 인식하고, 만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이 발달시켜야할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김보람(2012)의 ‘계획된 우연 척도(Career-related Planned happenstance Scale; CPHS)’와 Kim 등(2014)의 ‘계획된 우연 척도(Planned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PHCI)’가 있다. PHCI는 기존의 CPHS를 개정·보완한 것으로 5개의 하위척도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과 위험감수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5개 문항씩 총 25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우연적 사건에 대한 적극적 행동경향성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서 우연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적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된 우연 기술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우연을 기회로 만들어, 이를 진로발달 과정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 그렇기에 계획된 우연 기술은 오늘날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특성으로 진로와 관련된 변인 중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 기술을 대학생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연한 사건을 자신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기회로 인식하는 성격적 특성이자 학습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역량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나. 계획된 우연기술의 선행연구

Mitchell, Levin과 Krumboltz(1999)는 우연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연을 활용한 진로상담이론을 제안하며 우연을 활용할 수 있는 성향으로 계획된 우연 기술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계획된 우연기술은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이후 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신념, 진로포부 등을 포함하여 진로발달에 있어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직업세계에 입문하기 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약 69%의 학생들이 우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Bright, Pryor, & Harpham, 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입직자 중 약 72%가 예기치 않았던 요소나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Baumgardner, 1997). 대학교육을 받은 94명의 여성 피험자 중 63%이상은 예상하지 못한 개인적 사건으로 인해 직업 경로가 달라졌다고 하였다(Scott & Hatallo, 1990).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시 우연의 영향을 요인 별로 구분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연구하였다(이상희, 신상수, 2012).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결정과 우연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약 59%가 우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송병국, 1998).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연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진로결정의 내용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손은령, 2012). 국내외 진로관련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연은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개인의 신념과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박근영, 2015), 계획된 우연기술인 낙관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는 대학생의 진로성숙

도를 높인다(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그리고 대학생의 우연 대처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태도에 긍정적이며 진로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남근, 정미예, 2013).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었지만 황현덕 등(2012)은 고등학생의 진로포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계획된 우연기술에 의해 조절됨을 밝혔고, 오현주(2013)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계획된 우연기술을 기회전략으로 보고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자기수용, 직무목표, 긍정적 조직 관계, 환경통제, 직무자율성, 직무성장을 의미하는 직업안녕감이 높아짐을 밝혔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과 그와 관련된 과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며 진로결정 및 행동과 관련된 신념과 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진로에 대한 실제적인 탐색행동을 증가시키고 입직 후 직업에 있어서의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보더라도, 계획된 우연기술은 우연을 기회로 인식하고,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행동양식으로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이다. 또한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태도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서 적극적인 상담자의 개입으로 대학생 내담자의 진로발달에 있어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 진로결정 과정에서 우연적 사건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계획된 우연기술을 통해 우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2. 진로준비행동

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진로란 개인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 추구하고 바라며 계획하고 준비하여 하나 하나 이루어내는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이다.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진로개발에 있어 행동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하였고,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행동과 진로를 결정하고 난 이후 진로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준비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behavior)을 강조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등의 행동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로 사용되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활동, 직업탐색활동, 취업준비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진로상담 분야에서 처음 제기하면서 인지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박수현, 2015). Super(1979)는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와 관련된 인지과정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실질적 행위라 정의하였고, Phillips & Pазienza(1988)는 진로선택을 위해 준비된 행동과 실천의 행동을 말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의 진로에 대한 준비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오은주(2014)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진로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이며,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김봉환(199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충실도와 행위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 노력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정보수집행동은 자신에 관한 정보인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직업 현황, 전망, 입사방법, 자격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 포괄적인 정보를 말한다.

둘째, 도구준비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또는 교재 등을 구입하고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 상호작용 하면서 직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으로 진로준비행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김계현(2001)은 진로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자기 발견과 진로 탐색을 위한 행동과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위한 행동으로 이분화하여 설명하였다. 김선중(2005)은 합리적 진로결정을 위해 행동이 필수적이며, 진로결정 후에도 결정된 진로에 대한 후속행위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활동으로 구분하였다(김명희, 2016). 박윤아(2011)는 진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거나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목표를 세워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진로교육에서도 긍정적인 성취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진로를 결정하는 인식적이고 태도적인 측면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연구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발달의 행동적 측면의 중요성에 주목한 김봉환(1997)에 의해 개발된 진로준비행동의 척도로 인해 국내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보였다(김봉환, 1997; 이제경, 1997; 윤주영, 2000; 장기명, 1998; 전미애, 2006).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준비를 돕기 위한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에서 행동적 측면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진로준비행동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할 시기에는 정체되어 있다가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의미 있게 높아진다고 하였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김형균(2002), 권혁진(2009), 박윤아(2010)의 연구에서도 1학년보다 4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이 발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과 환경의 제공 및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금선미, 2009).

진로준비행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의 연구에서는 권혁진(2009)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김형균(2002), 정진희(2012)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약간 높긴 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현주(2008), 박윤아(2010), 이기엽(2011)도 남녀 성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관련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선중, 2005; 이명숙, 2003; 고태용, 2008; 양진희, 김봉환, 2008; 조명실, 2007), 송현심, 홍혜영(2010)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할 때 진로결정 자율성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여준다는 것을 밝혔다. 권혁진(2009), 양진희(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봉환(1997)은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홍, 2001). 유정숙(1998)은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김미주(2010)의 연구에서도 진로의사결정유형이 합리적일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선아(2001)는 진로준비행동과 불안,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과 불안은 유의하지 않은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준비행동과 성취동기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김선중, 2004; 이명숙, 2003; 유수복, 20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명숙, 2003; 유수복, 2013; 이종찬, 2013), 불안(김경태, 2003), 성취동기(최현정, 2006), 희망(김선중, 2005; 안혜경, 2008), 셀프리더십(이종찬, 2013; 송한나, 2013), 사회적지지(유수복, 2013; 이정희, 2015; 김현희, 2016) 등과의 관계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선행연구 결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관련 변인들 중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중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인이며 효과크기 또한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조영아, 정지은, 2017). 또한 정은희(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andura(1977, 1986)는 사회학습이론에서 타인을 관찰하면서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후 사회적 상황에서의 학습은 환경 - 개인 - 행동 간의 삼원적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회인지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때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 개인적 목표(Personal Goal)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인식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 인간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인지적 능력, 대리학습 능력, 자기통제 능력, 자기반성 능력의 4가지로 접근하였다. 자기반성 능력에는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개념,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4가지가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인간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인간의 행동을 환경적 자극이나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인지과정을 중요시하여, 개인이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다시 말해 효능기대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고 지속되며 변화한다고 보았다(Bandura, 1984).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수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Bandura, 1997).

Bandura(1984)는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사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청년기까지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구성되는데, 수행 성취, 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사회적 설득이나 격려, 이 4가지의 학습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진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탐구로도 이어졌

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고, 진로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진로상담으로까지 적용되고 있다 (Lent & Heckett, 1987).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Bandura(1997)는 의사결정 효능감이 강할수록 직업선택과 계획을 돕는 탐색적 활동들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Taylor와 Betz(1983)는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활동과 기술에 관하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는데, 그들이 연구에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를 이미 결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으로 개념화 한 것은 Hackett와 Betz(1981)이다.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와 관련된 결정,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로설정과 직업적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Hackett와 Betz(1981)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Taylor와 Betz(1983)에 의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CDMSES, 50문항)를 개발하면서 개인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CDMSES는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과 연계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를 측정하여 진로전반에 대한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수량화하였다. 뒤이어 Lent와 Hackett(1987)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뿐 아니라, 수학 수행능력, 진로탐색활동, 진로태도, 진로의사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Betz, Klein과 Taylor(1996)는 기존의 CDMSES에서 단축형(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 CDMSES-SF)을 개발하여 문항수를 50개에서 25개로 축소하였다.

국내에서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에 의해 CDMSES-SF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개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평가’는 자신을 능력, 욕구,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직업정보’는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을 찾고 관련된 조건과 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한다. ‘목표선택’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미래계획’은 진로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은 진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서경희, 2014).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타당화 된 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취,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 영향을 받으며(Betz, 1992), 안정감과 정서적 위안을 주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적 특성인 애착(김경희, 2009; 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장석진, 2005), 직업정보 부족, 미래불안,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진로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주는 진로장벽(김영경, 2008; 오은주, 2014;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 2011)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한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도,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등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구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의 개인적인 확신감은 진로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성숙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기학, 이학주, 2000).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미결정에 유의미한 예측변수로(Taylor & Popma, 1990) 진로결정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이성식, 정철영, 2007; Taylor & Betz, 1983) 진로미결정에는 부적영향을 준다(유지선, 2004). 이광희(2008)는 애착,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하은(2014)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부모애착에 영향을 받고,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황지영, 2014).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경험, 학습, 설득,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에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계획 추진에 있어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영향을 준다(이상희, 남숙경, 이상민, 2008). 또한 진로와 관련된 행동의 시작과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특정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자신감과 유능감으로 정의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겠다.

4. 각 변인과의 관계

가.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Mitchell, Levin과 Krumboltz(1999)는 진로에 있어서 우연의 영향력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연을 활용한 진로상담이론을 제안하며 변화하는 세상의 특성을 인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할 때 개인이 진로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Krumboltz(2009)는 진로에서 우연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은 변화가 많은 현실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연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은 호기심, 위험감수의 성향으로 적극적 탐색활동을 추구하면서 변화를 발생시키고, 변화에 당황하기 보다는 유연하고 낙관적으로 대처하며 인내심을 통해 변화를 진로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이런 적극적 탐색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많아지고 인내심을 통해 결실을 맺도록 하기 때문에 계획된 우연기술은 현실세계에서 적응력을 높인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소희(2016)의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아지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권수현(201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장선희(2013)의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차영은, 김시내, 강재연(201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영숙(2017)은 진로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 중 낙관성과 인내심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 중 구직동기와 구직기술이 높아진다

고 확인하였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서 세계의 특징을 인정하고, 특징을 최대한 사용하는 기술은 진로발달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장선희, 2013).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김보람(2012), Kim 등(2014)은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연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적 특성인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은 사람은 변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응적이며 자신감이 높다. 따라서 진로결정과 그에 대한 과업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봉환(1997)에 의해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진로준비행동의 개념화가 시도되었고,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척도가 개발되어 이후 진로발달의 행동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별, 전공별 등 개인적 특성요인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사회적지지 등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소수의 질적연구로 관계를 추론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상관을 보고하는 연구는 많지가 않다.

손은령(2012)의 연구에서 40대 여성 진로상담 전문가의 직업성취과정과 우연의 질적연구를 한 결과 일반적인 연구 참가자들이 우연이 진로경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을 하였다. 안윤정과 오현주(2012)는 15명의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직업상담사가 되는 과정에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우

연한 기회로 직업상담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직업상담사를 선택하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신순옥 등(2015)은 전환적 진로결정과정 속에서 우연적 요인 중에 하나인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김종상(2018)은 여행 종사원들이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하고 진로기회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발달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김보람(2012)은 진로탐색활동에 관한 개입이 계획된 우연기술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말하며 박윤희(2020)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에서 진로포부가 높은 경우 계획된 우연에 대한 역량이 직업과 관련한 탐색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 이를 통해 진로포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대학생의 우연 대처기술이 진로정체감, 부정적 취업태도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연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취업태도를 가지며, 진로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남근, 정미예, 2013). 이에 본 연구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아직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지 않은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박선영(2015)의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하는 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하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며 세 번째로는 목표를 선택하

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긍정적정서가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신미경(2017)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정적 상관관계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 중 정보수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변인간의 정적 상관관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며 진로 결정 이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의 진로목표를 위해 정보 수집을 하며 진로준비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배성아, 성소연(2016)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은희(2013)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고 각 하위요인별로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도구구비, 목표달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나태균과 문성원(2012)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관심 있는 직업을 탐색하고 그 직업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진로와 관련된 난관에 마주쳤을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및 지방의 4년제 대학생 40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였고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한 시간은 20분~25분 정도였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08)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00	49
	여	208	51
학년	1학년	37	9.1
	2학년	115	28.2
	3학년	102	25.0
	4학년	154	37.7
대학소재지역	서울	139	34.1
	경기도	64	15.7
	충청도	62	15.2
	강원도	17	4.2
	경상도	86	21.1
	전라도	28	6.9
	제주특별자치도	1	0.2
	기타	11	2.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90	46.6
	자연·공학계열	170	41.7
	예체능계열	22	5.4
	기타	26	6.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Ⅲ-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 결과 남성은 200명(49%), 여성은 208명(51%)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의 경우 4학년이 154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115명(28.2%), 3학년 102명(25%), 1학년이 37명(9.1%)순으로 분포하였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90명(46.6%), 자연·공학계열 170명(41.7%), 예체능계열 22명(5.4%), 기타 26명(6.4%) 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계획된 우연기술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Krumboltz(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근거한 Kim 등(2014)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김보람(2012)의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의 버전을 개정한 것(강소희, 2016)으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삶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들을 자신의 진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각 하위척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이며 5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않다)으로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연적 사건을 자신의 진로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표Ⅲ-2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08)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호기심	1, 2, 7, 20, 21	5	.79
유연성	3, 8, 9, 15, 24	5	.79
인내심	4, 10, 14, 16, 22	5	.89
낙관성	5, 13, 17, 18, 23	5	.89
위험감수	6, 11, 12, 19, 25	5	.85
전체		25	.94

Kim 등(2014)의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고, 호기심 .86, 인내심 .87, 유연성 .84, 낙관성 .89, 위험감수 .7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고 호기심 .79, 유연성 .79, 인내심 .89, 낙관성 .89, 위험감수 .85로 나타났다.

나.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백효주(2013)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부분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4점(아주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 4점 척도이며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Ⅲ-3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08)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정보수집활동	1, 2, 3, 14	4	.68
도구구비활동	4, 5, 11, 12	4	.72
목표달성활동	6, 7, 8, 9, 10, 13, 15	7	.86
전체		15	.91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문항은 총 15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한민영(2018)의 선행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표Ⅲ-3과 같이, 본 연구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정보수집활동의 Cronbach's α 는 .68, 도구구비활동의 Cronbach's α 는 .72, 목표달성활동의 Cronbach's α 는 .86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되었다.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을 이기학,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것으로 사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택, 미래계획, 문제 해결의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표Ⅲ-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08)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평가	5, 9, 14, 18, 22	5	.77
목표설정	2, 6, 11, 16, 20	5	.78
직업정보	1, 10, 15, 19, 23	5	.74
문제해결	4, 8, 13, 17, 25	5	.76
미래계획	3, 7, 12, 21, 24	5	.83
전체		25	.9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적일관성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구성요인별로 산출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검사의 문항은 총 25문항 5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표Ⅲ-4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자기평가의 Cronbach's α 는 .77, 목표설정의 Cronbach's α 는 .78, 직업정보의 Cronbach's α 는 .74, 문제해결의 Cronbach's α 는 .76, 미래계획의 Cronbach's α 는 .83으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전반적인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포함하여 하위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첫째, 기술통계치 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둘째,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살펴보았다.

셋째, 상관관계, 매개효과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 요인방법을 최대우도법, 점오블라민 사각회전 방법으로 설정하여 요인점수를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변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정한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진행하였다.

다섯째, 계획된 우연기술을 포함한 하위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절대값>1.96이면 유의함)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기술통계 (N=40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계획된 우연기술	호기심	3.68	0.65	-0.35	-0.05
	유연성	3.69	0.65	-0.15	-0.51
	인내심	3.45	0.70	-0.42	0.22
	낙관성	3.63	0.77	-0.42	0.19
	위험감수	3.54	0.72	-0.14	-0.08
	전체	3.60	0.58	-0.10	-0.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2	0.59	-0.09	0.09
진로준비행동		2.46	0.64	-0.12	-0.52

표IV-1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전체 평균은 3.60점이며, 하위요인인 인내심의 평균은 3.45점, 위험감수의 평균은 3.54점, 낙관성의 평균은 3.63점, 호기심의 평균은 3.68점, 유연성의 평균은 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2.46점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42점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정규성 검증에 활용되는 지표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이내로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자료의 정상성을 만족하였으므로(Kline, 2010)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IV-2. 변인간의 상관계수 (N=408)

변인	1	1-1	1-2	1-3	1-4	1-5	2	3
1. 계획된 우연기술	1							
1-1. 호기심	.76***	1						
1-2. 유연성	.76***	1.00***	1					
1-3. 인내심	.93***	.65***	.65***	1				
1-4. 낙관성	.85***	.54***	.54***	.72***	1			
1-5. 위험감수	.90***	.64***	.64***	.79***	.68***	1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72***	.50***	.50***	.68***	.69***	.59***	1	
3. 진로준비행동	.40***	.34***	.34***	.37***	.37***	.32***	.51***	1

*** $p < .001$, ** $p < .01$, * $p < .05$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분석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상관($r=.40,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기술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과 진로준비행동에 관계를 살펴보면, 위험감수($r=.32, p<.001$), 호기심($r=.34, p<.001$), 유연성($r=.34, p<.001$), 인내심($r=.37, p<.001$), 낙관성($r=.37, p<.001$)순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변인들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분석 결과 계

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r=.72,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기술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호기심($r=.50, p<.001$), 유연성($r=.50, p<.001$), 위험감수($r=.59, p<.001$), 인내심($r=.68, p<.001$), 낙관성($r=.69, p<.001$) 순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변인들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정적상관($r=.51, p<.001$)이 나타났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각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최종단계인 매개모형 분석에 적합하다고 본다.

3.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계획된 우연기술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3.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단계	모형	R^2	F	B	SE	β	t
1단계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22	444.000***	.721	.034	.723	21.071***
2단계	계획된 우연기술 -> 진로준비행동	.163	79.789***	.396	.045	.403	8.876***
3단계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262	71.911***	.072	.061	.073	1.185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 =.721, 표준오차SE(a)=.034					
Z=6.95***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49, 표준오차SE(b)=.061					

*** $p < .001$, ** $p < .01$, * $p < .05$

회귀분석을 한 결과, 예측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여($\beta=.723$, $p < .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403$, $p < .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과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의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beta=.073$)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6$,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인 계획된 우연기술 예측변인($\beta=.403$,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계획된 우연기술 예측변인($\beta=.073$)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그림 IV-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6.95$, $p<.001$).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이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성향으로 인해 진로준비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아 간접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계획된 우연기술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5번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대학생의 호기심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호기심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호기심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beta=.504, p<.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표IV-4.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단계	모형	R^2	F	B	SE	β	t
1단계	호기심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4	138.330***	.550	.047	.504	11.761***
2단계	호기심 -> 진로준비행동	.118	54.286***	.368	.050	.343	7.368***
3단계	호기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270	74.729***	.124	.053	.116	2.362*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 =.550, 표준오차SE(a)=.047					
Z=7.25***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43, 표준오차SE(b)=.048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호기심으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343, p<.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호기심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호기심($\beta=.116, p<.05$)는 유의미했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1,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호기심 예측변인($\beta=.343,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호기심 예측변인($\beta=.116, p<.05$)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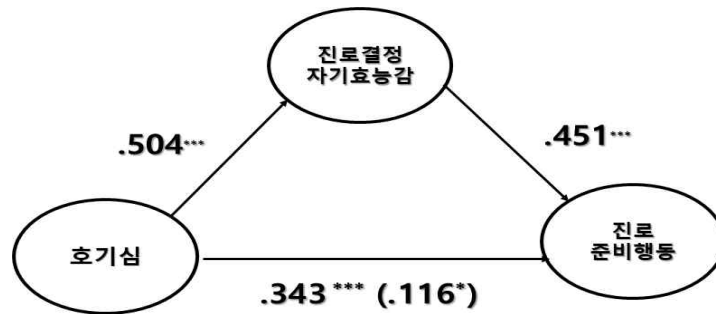


그림 IV-2. 대학생의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호기심과 진로준비행동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25, p<.001$).

나. 대학생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IV-5는 대학생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표IV-5. 대학생의 계획된 유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단계	모형	R^2	F	B	SE	β	t
1단계	유연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4	138.330***	.550	.047	.504	11.761***
2단계	유연성 -> 진로준비행동	.118	54.286***	.368	.050	.343	7.368***
3단계	유연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270	74.729***	.124 .443	.053 .048	.116 .451	2.362* 9.169***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 =.550 표준오차SE(a)=.047					
Z=7.25***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43 표준오차SE(b)=.048					

*** $p < .001$, ** $p < .01$, * $p < .05$

유연성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유연성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여($\beta = .504, p < .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유연성으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 = .343, p < .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림 IV-3. 대학생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또한, 유연성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유연성($\beta=.116, p<.05$)은 유의미했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1,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인 유연성 예측변인($\beta=.343,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유연성 예측변인($\beta=.116, p<.05$)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연성과 진로준비행동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25, p<.001$).

다. 대학생의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IV-6은 대학생의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표IV-6.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단계	모형	R^2	F	B	SE	β	t
1단계	인내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68	356.739***	.707	.307	.684	18.888***
2단계	인내심 ->진로준비행동	.140	66.146***	.380	.047	.374	8.133***
3단계	인내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261	71.429***	.049	.060	.049	.831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 =.707, 표준오차SE(a)=.037					
Z=7.43***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68, 표준오차SE(b)=.058					

*** $p < .001$, ** $p < .01$, * $p < .05$

인내심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인내심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여($\beta=.684, p < .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인내심으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374, p < .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인내심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인내심($\beta=.049$)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6,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인 인내심 예측변인($\beta=.374,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인내심 예측변인($\beta=.049$)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그림 IV-4. 대학생의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인내심과 진로준비행동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43, p<.001$).

라.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낙관성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낙관성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beta=.688, p<.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표IV-7.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단계	모형	R^2	F	B	SE	β	t
1단계	낙관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73	365.874***	.704	.037	.688	19.128***
2단계	낙관성 ->진로준비행동	.135	63.281***	.369	.046	.367	7.955***
3단계	낙관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260	71.154***	.032 .480	.059 .058	.031 .488	.532 8.277***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 =.704, 표준오차SE(a)=.037					
Z=7.59***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80, 표준오차SE(b)=.058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낙관성으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367, p<.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낙관성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낙관성($\beta=.031$)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

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88,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인 낙관성 예측변인($\beta=.367,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낙관성 예측변인($\beta=.031$)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그림 IV-5.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낙관성과 진로준비행동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59, p<.001$).

마. 대학생의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위험감수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위험감수는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여($\beta=.586, p<.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위험감수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323, p<.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위험감수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위험감수($\beta=.037$)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88, p<.001$).

표IV-8.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단계	위험감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4	212.620***	.611	.042	.586	14.582***
2단계	위험감수 ->진로준비행동	.104	47.250***	.331	.048	.323	6.874***
3단계	위험감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260	71.293***	.038	.054	.037	.700
				.480	.052	.488	9.247***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 =.611, 표준오차SE(a)=.042					
Z=7.79***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80, 표준오차SE(b)=.052					

*** $p<.001$, ** $p<.01$, * $p<.05$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인 위험감수 예측변인($\beta=.323,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위험감수 예측변인($\beta=.037$)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위험감수와 진로준비행동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79, p<.001$).



그림 IV-6. 대학생의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V. 논의

1.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과 하위요인간에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지며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와 진로준비행동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보람(2012), kim(2014), 강소희(2016)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장선희(2013)의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권수현(2017)의 연구에서도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확인하였고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연한 사건들은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정적상관이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저하된다는 선행연구들(고태용,2008; 김선중, 2004; 김수리; 2005; 김종운, 박성실, 2013; 송현심, 홍혜영; 2010; 양진희, 김봉환; 2008; 조성연, 문미란, 2002)을 재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 를 할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진로상담, 진로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대학생들이 진로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상담자들은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 스스로 진로를 준비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모한다면 학생들은 주체적인 진로준비가 되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지고 효과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성향으로 인해 진로준비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아 간접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명숙(2003)의 연구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김선중(2004)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연구결과의 선행논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수리, 2005; 김선중, 2005; 조명실, 최경숙, 2007; 이정애, 2009).

본 연구를 통해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높이는 행위가 진로준비행동의 상승 요인이며, 이것은 곧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을 계획된 우연기술이 촉진시킬 수 있다는 황현덕 등(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곽윤지(2017)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우연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고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상승하면 진로준비행동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독립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계획된 우연기술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중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는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기심, 유연성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매개로 나온 변인중 위험감수는 5개 변인중 가장 큰 영향력이 나왔다. 이는 위험감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진로지도시 학생들에게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매개효과 결과를 분석하면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과 유연성은 동일한 값이 나왔다. 이는 사전적의미로는 호기심[好奇心, curiosity]은 어떤 것의 존재나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려고 하며, 숙고하는 태도나 성향 또는 항상 생동감 있게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태도나 성향을 말한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유연성 [flexibility, 柔軟性]은 융통성이라고도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기존의 행동이나 사고 대신 그와는 다르게, 즉 대안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상담학 사전). 이처럼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과 유연성이 동일한 값으로 나왔기에 차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진로상담 장면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계획된 우연기술은 우연한 기회를 개인이 긍정적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으면 우연한 사건에 도움이 되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나 활동을 적극 탐색하고 우연한 사건을 기회로 만들어 진로와 관련된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을 대처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Michell, Levin, Krumboltz, 1999). 그러므로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우연한 사건을 불안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처한다면 계획된 우연기술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기를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진로와 관련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공경험과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진로상담 장면에서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우연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냄으로써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확장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을 개발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강화 시킴으로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여 성공경험을 함으로써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키우면 진

로준비행동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할 때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기에 연구결과를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활용하여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적도로 사용하여 획일적인 응답을 하거나 객관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과 더불어 질적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도 함께 분석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VI. 참고문헌

- 강소희(2016).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경필, 고정리(2018). 대학생이 인식한 심리적 및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439-468.
- 고재성, 정철영(2006).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4), 141-160.
- 고태용(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곽윤지(2017). 중학생의 진로포부와 진로탐색행동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수현(2017).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수준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정(2019).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수준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1(1), 121-138.
- 김경원(2018). 대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2009). 진로상담: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933-945.
- 김경태(2003). 특성불안과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 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2006).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남홍(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미주(2010).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옥(201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2016).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자기격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람(2012).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1), 311-333.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선경(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중(200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진로장벽의 관계유형과 진로자기효능감, 희망, 삶의 의미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8(4), 75-99.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2005).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옥경(2018). **대학생의 경력계획,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2011). **대학생의 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95-1016.
- 김영경(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윤성(2018). **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강낙원, 권동택, 박세훈, 정일환, 정진철, 이현민 (2016). **대학 진로교육 우수사례 확산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중운, 박성실(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141.
- 김중상(2018). **여행종사원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 간의 영향관계분석: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상, 김남조 (2018). 진로준비행동, 직업선택과정에서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역할, 진로 적응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여행사 종사원들에 대한 심층면접 방법을 중심으로. **관광 연구논총**, 30(1), 53-72.
- 김현희(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균(2002).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아(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근영(2015). **진로결정에 있어서 계획된 우연의 영향력 : 진로신념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리(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 국내연구 메타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희(2020).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 89-98.
- 박윤아(2011). **대학생의 완벽성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영(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희(2019). **고등학생의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2015).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경(2013).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중명(2017).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인선(2018).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수준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인선, 정기수(2018).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수준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1), 457-477.
- 백효주(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희(2014).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보람(2016).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2012).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결과**. *아시아교육연구* 13(2). 1-24
- 성하은(20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국내 대학생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수(2017). **대학생 진로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계획된 우연 이론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4, 1-27
-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

-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손은령 (2012). 직업 성취과정에 미치는 우연 혹은 기회의 영향 : 40대 여성 진로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437-453.
- 송병국 (1998). 성인노동자의 직업선택과정에서 우연적 요인이 미친 영향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0(4), 65-88.
- 송영란(200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희(2017).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한나(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심, 홍혜영(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2015).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 연구 : 전환 국면이 있는 코칭**.
- 안윤정, 오현주 (2012). **직업상담사의 직업선택과정에서 계획된 우연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25(4), 117-140.
- 안혜경(2008). **희망, 부모지지,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진희(2007).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선영(2015).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태영(2017).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은주(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31-58.
- 오현주(2013). **작업자의 계획된 우연과 기회전략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민정(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127-136.
- 이기엽(2011). **대학생의 문제해결자신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협업역량의 유형에 따른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희(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제경(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을 배경으로 한 과제접근기술,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855-875.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옥(2018). **전문대학생이 인식한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2017). **진로단절여성 구직자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연(2017).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신상수 (2012). 진로선택에서의 우연요인에 대한 대학생의 개념도 분석. **인간이해**, 33(1), 1-20.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식, 정철영(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정애(2009).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직업획득가능성이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찬(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찬, 홍아정(201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교육학연구*, 50(3), 177-206.
- 이현주(2008). 대학생의 사회불안, 진로결정장애,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진로교육연구*, 21(2), 109-125.
- 이향림(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계획된 우연 기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미, 장선숙(2004).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효과 :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18(4), 139-143.
- 임은주(2012).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지지 인식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유수복(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유순화(2016).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교육혁신연구*, 26(3), 149-168.
- 유지선(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주영(2000). 진로결정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및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기명(1998).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진로결정수준·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계영, 김봉환(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 장석진(2005). 대학생의 애착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학생생활연구(학생지도연구)*, 19, 91-114.

- 장현진, 정윤경, 김민경, 류지영(2017).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대학진로교육 현황조사 (2017)**.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미리, 김봉환(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전미애(200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숙(2015). **여자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2011). 전문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535-558.
- 정유선, 박미연(2017). 대학생의 자아정체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8(4), 165-183.
- 정은희(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희(2013).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관여에서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역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훈(2015). **성격의 5요인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조남근, 정미예 (2013). 대학생의 우연 대처기술이 진로정체감, 부정적 취업태도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337-357.
- 조명실(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실, 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영아, 정지은 (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129-150.
- 조성연, 문미란(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31-748.
- 조현재(2014). 대학생의 개인특성이 진로미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3(4), 103-127.
- 조현재(2017).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대학생활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연구. **진로교육연구**, 30(2), 63-80.
- 지이래(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영은, 김시내, 강재연(2015).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불안,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탐색.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36(2), 67-85.
- 최보영, 김보람, 김아름,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2011).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진로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873-1891.
- 최윤경(2014).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최동선(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주영(2020).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학습기술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역기능적 진로신념의 조절된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화영(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21). **2021년 3월 고용동향**.
- 한민영(2018).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201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지영, 고미나(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4(2), 135-150.
- 황현덕(2011). **계획된 우연성이 고등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조절 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고등학생의 계획된 우연 기술 수준에 따른 진로 포부와 직업탐색행동의 관계탐색. *청소년상담연구*, 20(2), 193-210.
- Bandura, A. (1982). The Psychology of Chance Encounters and Life Paths. *American Psychologist*, 37(7), 747-755.
- Bandura, A. (1984). Recycling misconceptions of perceived self-efficac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3), 231-25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7). *The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and Company, New York.
- Baron, Reuben M. and Davi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gardner, S. R. (1977). Vocational planning: the great swindle.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6, 17-22.
- Betz, N. E., Klein, K. I.,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etsworth, D. G., & Hanson, J-L, C., (1996). The categorization of serendipitous career development ev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91-98.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Bright, J. E. H., & Pryor, R. G., & Harpham, L., (2005).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carr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561-576.
- Cabral, A. C.,& Salomone, P. R. (1990). Chance and careers: Normative versus contextual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1), 5-17.
- Gati, I., Asulin-Peretz, L., & Fisher, A. (2011).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 3-year follow-up*. The Counseling Psychologist.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ox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43, 510-526.
- Hackett, G., & Lent, R. W. (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 Hackette,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art, D. H., Raynor, K., & Christensen, E. R. (1971). Planing preparation and chance in occupational ent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3), 279-285.
- Kim, B., Jang, S. H., Jung, S. H., Lee, B. H., Puig, A., Lee, S. M. (2014)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Engagemen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Certain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1), 56-69.
- Krumboltz, J. D. (1994).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424-428.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 Lent, R. W.,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Mitchell, L. K.,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2), 115-123.
- Phillips, S. D., & Paziienza, N. J. (1988). Decision-making styles and problem-solving apprais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497-502.
- Roe, A., & Baruch, R. (1967). Occupational changes in the adults years, *Personnel Administration, 30*(4), 26-32.
- Roenkae, A., & Pulkkinen, L. (1995). Accumula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381-391.
- Saks, A. M. & Ashforth, B. E. (2002). Is job search related to employment quality? It all depends on the fi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646-654.
- Scott, J., & Hatallo, J. (1990). The influence of chance and contingency factors on *career patterns of college-educated wome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1), 18-30.
- Steffy, B. D., Shaw, K. N. & Noe, A. W. (198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job search behav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3), 254-269.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 HoughtonMiffi

인크루트, 대학생 휴학을 하는 이유 1위 '취업 준비 위해', 평균 휴학 기간은?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9/03/04/2019030480123.html 2019.3.4. 인출.

잡코리아, 알바몬, 4년제 대학생 절반 “진로 아직 결정 못 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10266&code=61141111&cp=nv>, 2019.8.16. 인출.

<Abstract>

The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yun Myeong Heui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impa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Research problem 1. Do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impa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o solve this research problem, an online survey of 408 students from four-year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was conducted from April 2 to April 9, 2021.

The measurement tool of the study was Kang So-hee (2016)'s planned happenstance skills scale (25 questions, 5 Likert) to measu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5 questions, 4 Likert) and Lee Hak-joo (2000)'s career determination self-efficacy (25 questions, 5 Likert) to measu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ta analysi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PSS 18 for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ed effect analysis, followed by Sobel test for significance verific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relationships between all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ve emerged.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he more effective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the higher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he highe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the higher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making, the highe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has been shown to have a full parametric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uriosity, flexibility, patience, optimism, risk taking)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showed that

patience, optimism, and risk taking were fully mediated in the curiosity and flexibility were partially medi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was fully mediated in the path where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f college students directly affec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 static direction, showing indirect effects of increas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ly,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related services and programs in the career preparation intervention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로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본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답변은 오직 학술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귀하와 관련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될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과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연구자 : 현 명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김 성 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1. 다음은 계획된 우연기술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난 내 주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을 갖는다.	1	2	3	4	5
2.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뜻밖의 기회가 생기는 것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1	2	3	4	5
3. 나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따라 진로의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2	3	4	5
4.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1	2	3	4	5
5. 나는 미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1	2	3	4	5
6.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진로를 추구하겠다.	1	2	3	4	5
7.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내 진로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하나의 진로만 추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유연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10.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나는 참을성을 가지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나의 행동의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 볼 것이다.	1	2	3	4	5
12. 나는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1	2	3	4	5
13. 나의 미래의 진로는 밝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4. 진로탐색에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나는 꾸준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지닌 편이다.	1	2	3	4	5
16. 진로탐색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을성있게 나의 길을 가겠다.	1	2	3	4	5
17. 나의 앞날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내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1	2	3	4	5
19. 나의 앞날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0. 내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1	2	3	4	5
21. 나의 앞날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2. 내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1	2	3	4	5
23. 나는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1	2	3	4	5
24. 나의 미래의 진로는 밝다.	1	2	3	4	5
25. 진로탐색에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나는 꾸준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다음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하여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여 읽어 보거나 스마트폰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기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거나 교내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3	4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취업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계획세우기) 한 적이 있다.	1	2	3	4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설명회, 잡 페스티벌(박람회)등을 참관한 적이 있다.	1	2	3	4
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거나 직장체험(인턴)을 참여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학생생활 연구소나 취업지원본부 등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	2	3	4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1	2	3	4
12.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등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3.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스터디모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등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4.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15.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3. 다음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항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관심을 가지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 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선택 가능한 전공들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 택할 수 있다.	1	2	3	4	5
3. 앞으로 5년간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선택한 전공과 관련하여 학업상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단계를 밟아야할지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의 능력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들 중에서 원하는 하나 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7.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 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공 또는 진로목표를 위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직업에 대하여 향후 10년간의 고용경향을 알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희망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선택한다.	1	2	3	4	5
12. 나는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1	2	3	4	5
13. 나는 제일 먼저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 꿀 수 있다.	1	2	3	4	5
14. 나는 직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결 정할 수 있다.	1	2	3	4	5
15.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연봉을 파악할 수 있다.	1	2	3	4	5
16. 나는 진로를 결정한 후에 그 결정에 대해 염려하 지 않을 수 있다.	1	2	3	4	5
17. 내가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 할 수 있고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5
19.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이미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1	2	3	4	5
20. 내 흥미나 관심에 부합하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다.	1	2	3	4	5
21.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다.	1	2	3	4	5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23. 나는 대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1	2	3	4	5
24. 나는 취업면접과 관련되는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다.	1	2	3	4	5
25. 나는 가장 원하는 전공이나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낼 수 있다.	1	2	3	4	5

4. 다음 항목들은 전체 조사대상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항목으로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대학 소재지는?

- ① 서울 ② 경기도 ③ 충청도 ④ 강원도 ⑤ 경상도 ⑥ 전라도 ⑦ 제주
특별자치도 ⑧ 기타()

3. 귀하의 전공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예술·체육계열 ④ 기타()

4. 귀하는 몇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5. 귀하의 전공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
만족

6. 희망직업 분야 전공일치 여부

- ① 일치 하지 않음 ② 일치함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